

서양 복식

참고문헌: 서양복식문화사, 예지각, 2008

중세 복식-고딕 양식의 복식

명칭	특징
꼬뜨	-상체가 꼭 맞는 튜닉으로 블리오보다 단순, 소박한 옷 -옷 길이가 길며 () 슬리브나 () 슬리브가 달렸음
꼬따르디	-14세기에 남녀가 입었던 옷으로 몸통은 꼭 맞으며, 남자의 것은 앞 중심에 ()를 촘촘히 달았음 -여자의 것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단추를 촘촘히 달은 것도 있었으며, 팔꿈치에 ()라는 긴 끈이 달렸다.
쉬르코	-()의 가장 특징 있는 의복으로 남녀가 다 입었음 -초기의 것은 직사각형의 천을 반 접어 목둘레를 파고 뒤집어쓰면서 입는 방식으로 장식적인 목적에서 입었다.
우플랑드	-종교성이 짙고, 남녀가 다 입었고, 품이 넓음

	<p>-풍성한 품에 길이는 바닥까지 끌리는 매우 넓고 긴 소매를 가진 특이한 실루엣의 ()이다.</p>
로브	<p>-목둘레가 깊이 파이고, 보디스가 짧으며, 스커트는 길고 풍성한 옷 -15세기 여자들의 겉옷은 () 혹은 가운이 되어 유행함</p>
푸르푸앵	<p>-14세기에 남자들이 () 속에 입었던 것으로, 후기에는 일반화되어 상의로 입게 되었다. -앞 중심과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단추가 촘촘히 달려 있으며, 속에는 흰 셔츠를 입었다.</p>
쇼스	<p>-남자의 겉옷이 짧아짐에 따라 다리를 가리던 것이 발전한 것 -처음에는 튜브 모양으로 다리에 각각 끼우고 허리까지 당겨서 고정시켜 입었고, 나중에는 앞 중심과 뒤 중심을 꿰매어 () 같이 되었다. -15세기 말에는 양말이 나왔고 양쪽 다리의 색이 다른 것, 무늬가 있는 것 등이 나왔다.</p>

맨틀	-발끝 길이의 품이 넓은 형태의 옷으로 모피를 안에 대어 입었다.

근세 복식-르네상스 양식의 복식

명칭	특징
푸르푸앵	-남자가 중세 후기 무장 밑에 착용했던 ()가 일반화되어 시민들의 의복으로 된 것이다. -신체의 선을 과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는 특수한 방법과 기발한 모양이 고안되었으며, 재료로서 견직, 벨벳, 문직, 금은사직 등 사치스러운 것이 귀족, 신사 사이에 애용되었다.
쇼스	-양말로서 중세기 후반 이후 일반적으로 시민이 착용했다. -16세기가 되면서 ()라고 하는 짧은 바지와 ()라는 양말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다. -오 드 쇼스의 재료는 푸르푸앵과 같이 고급이며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이 사용되었다. -바 드 쇼스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으며 양말 형식이므로 각선미를 나타냈다.
코르피케 와 베르튀가 댕	-()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감으로 덮어서 싸고 수를 놓아 장식도 했다. -()은 일종의 언더 스커트로서 종형 또는 원추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며, 베르딩게일, 파딩게일로 불리운다.

16세기 르네상스 모드에 나타난 구성상의 특징

슬래시	-()는 르네상스 시대의 복장을 특징 지운 장식수법으로서 남녀복의 어깨, 팔, 팔꿈치, 가슴 등에 나아가서는 남자의 하의에까지 넓게 적용된 장식법이다. -()는 전쟁에서 찢어진 군복이 독일 병사들 간에 유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러프	-()는 맞추름을 잡은 바퀴모양의 칼라로서 세기의 중엽, 스페인에서 유럽제국에 보급된 것이다. -()의 유행은 귀족들의 사치와 권위의식의 발로로서 르네상스의 절정기를 장식했으며 서민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매	-()과 ()가 점점 복잡화하면서 1440년대에는 소매를 따로 만들어 붙이게 되어 소매는 더욱 다양해져서 특징 있는 소매가 탄생했다.

근세 복식-바로크 양식의 복식-남자복식

명칭	특징
푸르푸앵	-17세기에 이르러 일반복식의 경향과 같이 실용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약 10여 년간은 어느 정도 () 스타일의 요소가 잔존하였다. -1640년대에 이르러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바지의 상층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680년경 궁정 남성이나 멋쟁이들의 ()은 옷의 길이와 소매의 길이가 아주 짧아져 상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베스트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남자용 상의로 영국에서는 ()라고 불렀다. -슈미즈와 쥐스토코르 사이에 착용하는 중간의복으로 ()이 단순하게 변화한 형태로 본다.
쥐스토코르	-1670년경부터 귀족풍에 대항하여 착용하기 시작한 남자의 상의 -()이 상의로서의 특성을 잃어감에 따라 ()를 대신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사라지지만 오늘날의 남자복장의 시조를 이루었다.
오 드 쇼스	-16세기의 호박처럼 부풀렸던 바지의 프랑스 명칭 -17세기가 되면서 패드를 넣지 않고 모양이 축소되고 어느 정도 풍성한 () 형태로 되었다.

퀵로트	<p>-()의 폭이 점차 좁아지면서 몸에 꼭 맞게 된 바지</p> <p>-상의인 ()과 함께 착용하면서 푸르푸앵에 달린 끈으로 허리의 구멍에 꿰어서 연결하였으나 푸르푸앵이 짧아지자 허리를 벨트로 조였다.</p>
랭그라브	<p>-17세기 중엽 프랑스에 등장한 의복으로 신사들 사이에 모드로 받아들여졌다.</p> <p>-그 형태 때문에 영국에서는 ()라고 불렀다.</p> <p>-랭그라브 스타일 중 초기의 것은 간단한 긴 천을 허리에 둘러 맨 짧은 () 형태로 궁정에서만 착용하였다.</p>

바로크 - 여자의 의상

명칭	특징
보디스	17세기 여성복은 ()와 ()가 분리된 투피스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네크라인, 칼라	<p>1. 17세기 초부터 1630년경까지 - 16세기에 유행했던 (러프 칼라), 스퀘어 네크라인의 양옆에 (메디치 칼라)를 벌어지게 달거나, 주름의 깊이를 낮게 하여 한 겹 내지 두세 겹 겹쳐 달거나 칼라 없이 가슴을 깊게 판 네크라인이 유행했다.</p> <p>2. 1630년경 - 머리 뒤로 뺀친(휘스크 칼라)와 주름 없이 어깨를 내려 덮는 플랫칼라가 유행했다.</p> <p>3. 1650년경 - 돌레션을 많이 판 현상이 다시 생기면서 속에 입은 (슈미즈)의 주름이 목 밑까지 오게 하거나 많이 파진 네크라인에 레이스 프릴을 달기도 했다.</p> <p>4. 1660~1670년경 큰 사이즈의 (폴링 칼라)가 사라지고 스퀘어 네크라인이나 완만한 곡선의 배 모양의 (바토 네크라인)으로 풍만한 유방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p>

소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여성복의 소매에는 16세기와 같이 슬9 래시 장식)이 있었으며 소매는 풍성하고 길이는 팔꿈치까지, 혹은 손목까지 달았다. 2. 1620년경부터 길이가 점점 짧아져 1630년경에는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반소매로 변화하였다.
스커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7세기 초기에는 전대의 비활동적이고 극도로 거대한 드럼, 동형의 스커트를 그대로 착용하였다. 2. 1622년부터는 파딩게일이 없어지면서 스커트의 길이도 마루에 살짝 닿을 정도로 줄어들어 전체적인 실루엣은 거창하지 않고 활동적인 형태로 변한다. 3. 17세기 중엽부터는 다시 페티코트를 받쳐서 부피를 늘리고 길이도 더 길게 하여 입었으며, 엉덩이의 양옆으로 퍼지는 (파니에)를 사용하여 거창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코르셋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르셋은 고래수염을 (캔버스)라는 뽀뽀한 천 사이에 넣어 만든 것으로 보디스에 프린세스 라인처럼 소매로부터 앞중앙을 향해 사선으로 자르고 촘촘하게 바느질을 한 것이다. 2. 코르셋은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디자인된 것이며, 후에는 가는 허리가 유행되자 더욱 세련된 모양으로 변하여 짧은 소매나 긴 소매가 달리게 된다. 3. 17세기 후반에는 궁중세력이 강화되면서 다시 귀족풍이 유행하게 되어 네덜란드풍은 사라지고 허리를 조임으로써 코르셋이 다시 필요해졌는데,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코르발렌, 영국에서는 (스테이즈)라고 했다.